

近代디자인의 轉換期的 時點에 있어서 裝飾論의 展開過程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Ornamental Theory towards Modern Design in Transitional Age

조영배* Cho, Young Bae
 김흥기** Kim, Hong Ki
 윤도근*** Yoon, Do Keun

Abstract

This thesis is to research the change in attitude regarding the architectural ornament. One of the key dogmas within Modern Movement of art and design was anti-ornamentalism. The modernist had revolted against ornament and believed that the greatness of the modern age might lay in its inability to produce a new form of ornament. Architectural ornament has been passed through an process of evolution in a decadent stage.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istorical meaning of architectural ornament in the age of transition toward Modernism.

1. 序論

近代 以前까지 裝飾은 建築의 重要한 要素로서 고려되었고, 建築物은 裝飾이라는 휘장을 두른 構造의인 容器로서 세워졌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그리스, 로마시대로부터 르네상스, 신고전주의로 發展되는 古典主義 建築에 있어서 裝飾의 要素의 分配및 配列을 決定하는 規則은 持續的으로 研磨되어 相當한 緻密性을 維持해왔다. 裝飾은 다른 부분과의 기하학적인 관련성을 갖고 질서있게 구성되었으며, 질서를 이룬 모든 요소는 획득된 모델에 의하여 배열된 조화를 추구해왔다. 건축가는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거시적인 공간구성으로 부터 미시적인 장식에 이르기까지 비례관계를 기반으로 삼아 건축물을 교묘하게 취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金세기초에 건축을 비롯한 디자인 분야와 장식예술 분야에 발생했던 大變革은 이전시대의 表現方法, 形態論, 方法論의 거부에 입각한 것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전개된 산업사회 의 급진적 도래는 디자인 분야의 생산 시스템의 재분석을 촉구하면서 전통적인 형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많은 비평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대표적인 결과로서 장식이 디자인 어휘에서 제거된 점을 들고 있다. 반면에 모더니즘 시기에 미학적으로 철저하게 배척당했던 장식은 포스트모던의 기치하에 양식 역사상에 재등장하여 急進的인 藝術의 代表的 表現手段으로서 論理的 妥當性을 재획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脈絡에서 本 研究는 裝飾의 本質과 概念의 變化에 대한 歷史的 眺望을 통해 美學的 觀點을 서술하고, 革新的 變化를 招來한 19세기에서 20세기초에 걸친 근대 디자인으로의 轉換期에 있어서 二元化된 裝飾論에 관해 살펴보고 그것의 轉換期의 意味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裝飾概念 變化의 歷史的 概觀

한스 제들마이어(Hans Sedlmayr)는 《近代예술의 혁명》 속에서 “裝飾이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개념지우는 것은 결코 쉽지않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見解는 裝飾은 歷史的으로 形而上學的인(심지어 미술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콤라스워미(Ananda k. Coomraswamy)의 견해와 상통하는 것으로, 장식에 대한 개념 정의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장식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미화, 즉 피장식물을 미화해서 윤화하는 것이다. 협의의 의미로는 미화를 위한 장식의 전체 체계를 의미하는 ‘Decoration’²⁾과 구분하여 개개의 미화를 위한 장식적 모티프를 의미한다.³⁾ 또한 Ornament의 어원은 라틴어의 Ornatus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의미는 1) 준비, 설비 2) 장식 3) 화려한 의복 4) 세계, 우주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바우에르(Herman

〈표 2-1〉 裝飾 概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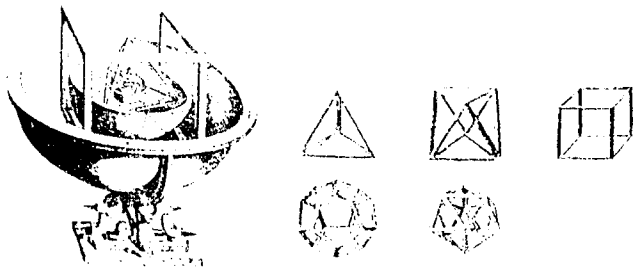
廣義의 意味	Ornament(裝飾體系)	
	ornament(裝飾모티프)	decoration(裝飾構成)
狹義의 意味		
語原	a) Ornare b) ornatus c) ordinare	
內容	a) 形을 附與하려는 意圖 b) 1. 準備, 設備, 2. 裝飾 3. 衣服, 制服 4. 準備, 武裝 5. 世界, 宇宙 c) 秩序, 世界, 宇宙	a) 美化하려는 意圖
備考	裝飾한다는 것은 秩序-設定(Ordnung-Stiftung)의 關係	

* 정회원, 홍익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 이사, 동양공전 건축과 조교수, 홍익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 회장,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Bauer)는 'Ornament'는 'Ordinare'에서 유래된 것으로, 어간에 질서를 뜻하는 'Ordo'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장식한다는 행위 자체는 질서를 설정함과 동시에 대상을 돋보이게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裝飾에 대한宇宙論의概念,定義는 고대로부터 발전되어온裝飾概念의變遷을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그리스 시대의 피타고라스는 "장식은 만상의 수학적 秩序關係를 갖고 이어지며, 그러한 방법으로 形象化된裝飾은 신성한 秩序(Ordo)가 내포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장식을 통해서 우주를 대상으로 형(Eidos)을 형상화하며, 신이라고 하는 우주의 천상을 재현하게 된다"고 하였다.⁹⁾

플라톤 또한 장식에 대한 사고를 宇宙論의 사고와 연결시켜 "天地를 創造한 신의 사색으로서 구성된 형은 完璧한 法則의 실제적 원리인 均齊, 比例, 造化가 적용되어 장식을 이루고 있다. 즉 장식이란 신의 존재의 이미지가 物質化되고 形式化된 것이다"¹⁰⁾라고 정의하였다 <그림 2-1>.



(그림 2-1) 플라톤의 우주론적 장식관

중세에 있어서도 스콜라 哲學者들은 建築의 美를 構造의 美와 裝飾의 美로 區分하여 裝飾의 美를 'Ornamentum', 'Ornatus'라 부르고 裝飾을 天地創造와 함께 無로부터 창조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와같이 裝飾에 대한 宇宙論的, 혹은 神學的 解釋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미와 장식 사이에 구분을 행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알베르티의 건축미론은 건축자체미와 그것에 부가 결합된 장식미로 구별하고 장식미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저서 《건축십서(De Re Aedification, 1450)》에서 건물 구성의 본질적 원칙 혹은 '禮法에 맞음'을 建物裝飾의 일부로서 定義하고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모든 사물에 있어서 중요한 장식은 '모든 부적합한 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다. 미란 모든 부분의 합법적인 일치이다. 장식은 흡사 미를 뒷받침하고 있는 희미한 빛으로 미를 보충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는 내적 본성에 잠겨있는 것인 반면, 장식은 내적 본성보다는 가공적인 가상과 외적인 부가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¹¹⁾

좋은 디자인의 本質的 要素로서 裝飾行爲의 本質을 '부적합성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사고한 이와 같은 장식개념은 고전의 건축이론에는 없던 것으로 알베르티는 가끔 그와 저서에서 건축과 장식이라는 두 개의 용어를 같은 뜻으로 나타낸다.¹²⁾ 왜냐하면 그의 목표는 건물 부분들 사이를 구별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장식이 훌륭한 건축에서 디자인의 행위와 각각의 재료 속에 스며들어 있는 부분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르네상스의 建築家들은 建物에 神과 自然이 하나가 되는 統合된 調和로 描寫되길 원했고, 그것은 르네상스 문화의 知的이고 精神의인 이상이기도 하였다. 궁극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들에게 있어서 전체 건물이 갖는 단정성, 조화성, 그리고 기쁨은 모든 건물 디자인에 있어 주 관심사로서, 건물의 장식은 단지 끝머리에 적용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사고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이후에도 지속되어 1400년부터 1750년까지의 기간 동안(비록 바로크 시대까지 기념물들이 장식으

로 덮여 있다 할지라도) 건축가들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장식을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裝飾 혹은 꾸밈을 構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現代의 理解는 르네상스가 끝나고 바로크가 사망길에 접어들었던 18세기 후반에 발전되기 시작했다. 産業革命을 동반한 1750년부터, 모든 분야에서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류하고 기술하기 위한 지적 노력들이 시도됨으로써 장식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비로소 행해지기 시작했고, 각 예술장르가 분열되기 시작함에 따라 장식 성향이 변화를 겪게 된다.¹³⁾ 아울러 과거 건축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착수되었고, 이전의 역사학적 기간동안의 양식들은 새롭게 분석되고 정의되었다. 기존의 장식개념이 와해되고 새롭게 구축되기 시작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3. 19世紀 社會狀況과 裝飾論

19世紀를 決定짓는 社會, 經濟學的 觀點은 19세기에 생성되기 시작하여 20세기에 절정에 도달한 산업사회의 대두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19세기에 發達한 산업 형태의 예술은 建築뿐만 아니라 藝術全般에 波及 效果를 가져왔다. 이러한 社會形態의 獨自의인 特徵은 주로 生産에 利用된 새로운 機械的 手段과 美的 趣味(Aesthetics Geschmack)를 完全히 變形시켜 藝術品全般을 生活에 適用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樣式을 불러일으켰던 機械主義와 密接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현상은 기계주의가 최고에 달한 19世紀末과 20世紀初에 確定된 것이다. 이러한 미학의 혁명(Aesthetik Revolution)에 본질적인 역할을 한 것은 기계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 후에는 산업 조직과 그 구조물의 생산과정에서 이용된 새로운 재료인 철이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철의 특질 가운데 하나는 철로 만들어진 건축물에는 종전과 같은 장식이 알맞지 않다는 점이다. 19세기에 등장한 산업자본주의는 목적성을 갖지 않는 '미'라는 개념을 없앨 뿐 아니라 미(Schön)와 추(Häßlich)라는 낡은 美學的 概念까지도 消滅시켜 適合한 目的性과 有用性의 原則에 의해 事物을 새롭게 評價할 수 있는 길을 개척했다.

- 1) 海野洪, '裝飾空間論', 美術出版社, 日本 東京, 1973, p.15
- 2) Decoration은 Ornament와 종종 혼동되어 사용되는 용어인데, Decoration은 건축, 조각, 회화, 공예 등의 구체적인 것에 Ornament를 적용하는 것이고, Ornament에 의해 규정지어지는 것이다. (H. Bauer, 'Kunsthistorik', München, 1976. p.48) Decoration은 美化한다는 종합적인 뜻으로, Ornament는 限定空間이나 건축적 디테일에서 적용된 장식적 모티브를 일컫는다. ('西洋裝飾文樣의 歷史', 若宮信晴 著, 文化出版局, p.6)
- 3) Wörterbuch der Kunst, 'Kröners Taschenansgabe', Bd. 165 hrsg. V. Johannes Jahn, Stuttgart, 1966, pp.508 ~ 509.
- 4) Hermann Bauer, 'Kunsthistorik', Eine Kritische Einführung in das Studium der Kunstgeschichte, Verlag C. H. Beck, München, 1976, p.46
- 5) Paul Edwards(Editor),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2',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N.Y., 1967, pp. 80 ~ 81
- 6) E. H. Gombrich, 'The Sense of Order, A Study in the Psychology of Decorative art', Cornell Univ. Press, N.Y., 1984, p.67
- 7) Robert Jensen & Patricia Conway, 'Ornamentalism', New York, 1982, p.4
- 8) Robert Jensen and Patricia Conway, 'Ornamentalism', New York, 1982, p.4
- 9) 일례로 벽은 장식이었으며, 동시에 장식은 벽체이었다. 기둥, 창문, 문, 천장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 10) 한스 세들마이어(Hans Sedlmayr)는 그의 저서 '중심의 상실(Verlust der Mitte, 1948)'에서 "모든 예술의 분리라는 현상과 더불어 아주 밀접하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식의 사멸(der Tod des Ornament)"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時代的 狀況과 聯關지어 本 論文에서 19世紀를 裝飾論 分析의 주 대상으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장식론적 특징에 의한 것이다. 이 시기 이전까지 장식은 성문화되어 왔지만 그것은 건축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19 세기에 이르러 건축 양식의 전체를 포괄하는 절충주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역사는 중성화되고 양식은 개별성을 상실하면서 장식은 개개 양식의 독자성을 명시한 것이라는 그 당시까지의 일반적인 통념이 약화되었다. 이것은 전시대와는 달리 각시대별, 지역별로 고유한 양식이 성립되지 못하고 역사주의적인 자세를 취했던 당시의 건축적 상황의 대표적인 산물이었다. 이와같은 시대적 상황은 자유자재로 장식이 행해지면서 장식에 대한 의도적 연구가 활발히 행해졌다.

둘째, 19세기는 歷史上 裝飾의 採集과 論議가 가장 활발하게 행해 지던 시기라는 점이다. 이와같은 時代的 狀況과 함께 자유자재로 裝飾이 행해지면서 裝飾에 대한 意圖的 研究가 활발히 행해졌다.

셋째, 市民社會의 展開에 따른 社會構造의 變化와 産業革命에 의한 生産시스템의 變化로 生成된 反裝飾主義의 등장이다. 近代性 (Modernity)이라는 위대함은 새로운 形態의 裝飾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無力함에 있다¹⁰⁾고 力說한 아돌프 로스(Adolf Loos, 1870~1933)의 見解처럼 초기 모더니즘 운동 내에서 반장식주의적 논란이 양식사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17세기와 18세기까지만 해도 모든 건축의 隆盛期에서와 마찬가지로 裝飾은 보다 중요한 건물에서 사용되었고, 慎重하게 제한된 象徵體系에 의해 디자인되었다.¹¹⁾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建築에 있어 裝飾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자유롭게 사용되었으며, 더 이상 統制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기디온(Sigfried Giedion)은 19世紀初부터 展開된 裝飾 남용의 根源의 背景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 첫번째 배경은 이전의 세기에서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의 一貫된 體系를 形成하는 統一된 世界觀의 不在에 따른 것으로, 커다란 觀點에서 그러한 體系의 不足은 混合된 樣式의 異國의 趣向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¹²⁾

裝飾을 支配者가 追求하는 기호의 시초로서 간주하는 기디온은 두 번째 背景으로 나폴레옹 시대의 궁정 디자이너인 페르시에(Charles Percier)와 퐁텐느(Pierre Francois Louis Francois)의 영향을 들고 있다. 특히 나폴레옹 시대의 새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刮目할 만한 改革을 指摘하면서, 王朝가 갖는 道德的 水準의 確證을 위해서 오히려 過去의 時代的 意志들과 메커니즘들을 살펴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페르시에와 퐁텐느는 로마 왕조에서나 볼 수 있는 사치에 가까운 상징적 장식체계를 사용하였다. 1794년부터 181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이러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며, 그것은 유럽의 趣向 혹은 支配者 趣向(ruling taste)이라는 問題를 야기시켰다.

19세기에 流行하던 또다른 裝飾的 特徵인 多色裝飾의 배경에는 고고학적 유물의 발견이 영향을 미쳤다. 18세기의 신고전주의는 독일의 위대한 예술사가 빙켈만의 세대에 인식되었던 것처럼 그리스 건축의 고귀한 단순과 고요한 단순성에 깊숙히 의존하였었다.

그러나 그리스 건축이 多彩色이었다는 발견은 충격적이었다. 그러한 내용을 다룬 대표적인 예가 1830년 히토프(C. J. Hittorff)에 의해 쓰여진 《그리스의 다색 건축》이었다. 동시에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들이 채색되어 있었느냐에 관한 논쟁들이었다. 이와같은 19세기의 색채에 대한 관심은 다색 인쇄술의 발전과도 그 궤를 함께하고 있다.¹³⁾

이처럼 19세기에 장식론의 형성 배경은 새로운 부의 재편과 뚜렷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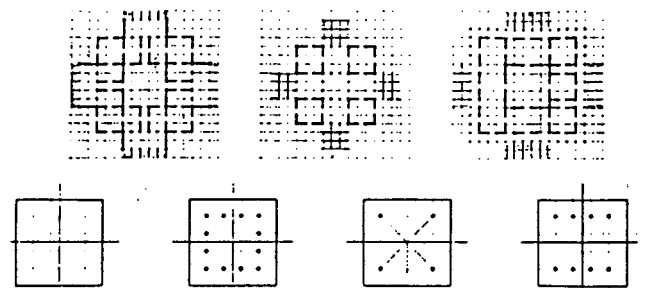
건축 이념의 부재에 의한 전통적 가치의 왜곡, 미학적 식별력의 상실, 그리고 고고학적 유물의 발굴에 의한 다색 장식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절충주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19세기의 ‘양식의 전쟁(battle of styles)’은 다양한 장식적 시스템들의 타당성과 의미 주위에서 형성되었다. 아울러 통제된 혹은 규칙있는 장식의 적용을 통해서 장식에 대한 새로운 이념과 법칙을 찾으려는 시도가 싹트기 시작했다.

4. 19世紀 裝飾論에 對한 分析

아름다움, 행복, 즐거움 등의 단어는 19세기에 장식과 연관된 특질이 었다. 어디에나 자유롭게 적용되었던 당시의 裝飾趣向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裝飾의 사용에 대한 타당성 혹은 단정성에 대한 관심과 미에 대한 의심스러운 입장을 지니게 되었다. 장식을 주제로 글쓴이들은 장식 사용의 도덕성과 타당성을 논했고, 장식의 좋고 나쁨의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로서 장식에 대한 문법적 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분석을 행하였다. 크게는 裝飾의 體系를 確立하려는 試圖와 裝飾에 대해 근본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반장식주의적인 자세로 나타났다.

19세기에 擡頭된 裝飾論은 다음과 같이 二元化된 觀點으로 把握할 수 있다. 裝飾의 體系를 確立하려는 일련의 建築家들은 裝飾의 社會的, 經濟的, 道德的, 機能的 觀點에서 時代 狀況과 맞지 않음은 裝飾體系가 表皮에서 消去되어 裝飾의 構成原理를 建物の 構成에 適用될 것을 주장한 構造化된 裝飾論과 장식이 갖는 상징적 힘과 형태언어로서 視覺的 裝飾體系를 강조한 裝飾化된 構造論으로 대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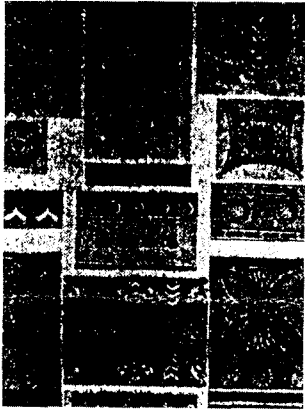
構造化된 裝飾論을 역사적으로 조망해 보면 18세기 말의 듀랑(J. N. L. Durand)에서부터 19세기 말의 아돌프 로스까지 이어진다. 18세기말이라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듀랑은 經濟的, 機能的 觀點에서 裝飾의 構成原理가 건물 平面構成에 적용될 것을 주장했다. 듀랑은 장식이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인 배치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한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한다¹⁴⁾(그림 4-1).



〈그림 4-1〉 장식적 구성원리를 이용한 듀랑의 평면구성

또한 푸긴(A. W. N. Pugin, 1812-1852)은 19세기초에 裝飾의 2次元性과 裝飾의 構造化라는 개념을 주장하였다.¹⁵⁾ 裝飾의 구조화라는 그의 개념은 裝飾과 構造의 統合을 意味하는 것이며 裝飾이라는 것은 구조에 장식을 부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축된다는 개념이다. 즉 구조와 장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조를 완전히 나타내면서 구조의 존재 형태에 따르는 장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를 확실히 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장식을 구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장식의 체계를 확립하려는 대표적인 예로서 1856년 집필된 오웬 존스(Owen Johns)의 저서 《장식의 문법(The Grammar of Ornament, 1856)》은 장식의 분류학적 기초를 이룩한 양식사의 백과사전 같은 것으로, 훌륭한 장식의 전체로서 장식의 형식과 색채에 관하여 37개의 원



〈사진 4-1〉 장식의 문법

리를 서술하고 있다.

오웬 존스는 이 책에서 장식에 대한 채집과 함께 체계적인 분류를 행하였다. 그의 장식론의 특징은 기하학적 구성에 기초를 둔 자연 형태의 이상화로서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러한 기하학적 형태가 입면, 평면 등에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形態는 左右 對稱과 規則性에 根據한다고 주장했다¹¹⁾ 〈사진 4-1〉.

이들의 原理는 建築에 있어서 장식의 적절한 역할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조화와 비례에 의한 장식의 결합방법과 전개 과정, 색채의 조화와 사용 방법, 의장적 처리에 있어서 모방과 도덕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세하게 묘사된 삽화는 장식의 교묘한 취급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장식이 대칭성과 율동성을 지니도록 기하학 형태의 유니트 조작성에 입각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즉 그리이스의 기하학처럼 장식은 어떠한 특수한 질서 속에서 계산된 움직임을 필요로 하며, 유니트의 반복은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례체계로부터 도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니트의 조작성은 평행이동, 회전, 반전, 도치 등 4가지로 나타나 있다.

〈장식의 문법〉은 20세기초까지 간헐적으로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대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장식이 행해지는 문법을 예시함으로써, 그의 추종자인 크리스토퍼 드레서(Christopher Dresser)가 후에 과거 양식들이 지닌 도덕성을 검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며, 다색으로 인쇄된 풍부한 자료들은 색채의 응용에 특별한 사고를 심어주어 당시의 다색 장식에 대한 성향에 일조하게 된다. 또한 미개한 부족의 양식으로부터 이슬람 예술의 높은 업적에 이르는 다양한 장식의 예시는 절충주의 양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구조화된 장식론은 아돌프 로스에 와서 절정을 맞는데 그는 시각적인 장식체계를 프로이드적 사고에 입각한 성적인 퇴행이거나 변태적인 성도착으로 여겼다.¹²⁾ 그러므로 성적이고 관능적 쾌락이란 근대 세계의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저질스러운 것이며 장식이란 바로 그 성적,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는 집단의 특성이 라고 생각했다.¹³⁾ 또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시각적인 장식을 반대하는 논리를 간단히 노동의 낭비라고 설명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건축사학자 햄린(A. D. Hamlin)은 그의 저서인 《Encyclopedic History of Ornament (1916~23)》에서 순수한 장식은 1) 공간을 덮은 방식, 2) 장식 생산의 의미와 방식, 3) 장식 디자인의 원리와 방법, 4) 구조와 장식과의 관계 등 4가지 원칙들에 의해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같은 햄린의 분류는 ‘Ornament’와 ‘Deco - ration’이라는 단어를 개념적으로 변별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19세기에 있어 장식화된 구조론의 전개는 쟈퍼(Gottfried Semper, 1803~1879)에서부터 대두된다. 그의 장식관은 장식이 나

은 개개의 요소에 관한 것으로 장식이 나오게 된 역사성, 존재이유, 본질,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전체 속에서의 역할, 전체의 존재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장식관은 장식을 형태언어(Formensprache)라는 기호론적 관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건축의 형태언어로서 사용된 장식이 민족의 고유한 상징언어로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⁴⁾

결국 쟈퍼의 장식관은 장식을 기본적으로 형태의 파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건축적 장식형태에서 裝飾化된 構造라는 理論的 根據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슈마르소(A. Schmarso)는 장식을 형식충동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형식원리에 의해 추상화되고 형식미의 추구와 시공을 초월한 시각적 장식체계가 예술 분야의 공동된 특징이라고 그의 장식관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裝飾化된 構造論의 견해는 콤라스위미(Ananda k. Coomraswamy)에 이르러 좀더 形而上學的 意味를 갖게 된다. 그는 裝飾의 역할을 “實存의 環境 안에서 의미를 지닌 因子들을 서로 결합시켜 좀더 완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그의 장식관을 밝히고 있다.¹⁵⁾

이러한 二元化된 裝飾觀은 裝飾美學과도 聯關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장식미학에서 장식의 發生原因을 模倣과 衝動이라는 二元化된 概念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구조화된 장식론은 시각적 장식체계보다는 내면화된 장식체계로 이루어지며 장식미학적 배경은 裝飾衝動說로 구체화된다.

한편 裝飾化된 構造論은 쟈퍼의 다색 장식과 형태언어라는 개념에 영향을 받았으며 장식의 발생 배경을 模倣이라는 관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관점은 장식을 형식미를 위한 형식으로 파악하고 기하학적 문양의 발전 속에서 시각적 장식체계가 건축미의 부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세기말에 이르러 보링거(W. Worringer), 슈마르소(A. Schmarow) 등의 비인(Wien)학파의 장식론으로 이어지며 아르 누보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과 같은 19세기 장식론에 대한 분석들은 장식이 소멸되는 과정 속에서 건물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장식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불빛을 비추어주었다 할 수 있다 〈표 4-1〉, 〈표 4-2〉.

- 11) John Thackara, 'Design After Modernism', Thames and Hudson, 1988, p.117
- 12) 이정수 역, '근대건축의 이념과 변화' (Peter Collins,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태림문화사, p.129.
- 13) M. Monlar, 'The Interior Dimension',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992, Interior Deminsion, p.121
- 14) 韓永浩, 金洪基 共譯, '현대디자인의 이해' (Michael Collins, Towards Post-Modernism), 기문당, 1992, pp.16~17.
- 15) 이용재 역, '建築과 近代科學의 危機' (Alberto Pérez Gomez, 'Architecture and Crisis of Modern Sciences'), 기문당, 1989, p.241
- 16) 'The Principle of Pointed or Christian Architecture', p.23, A.W.N.Pugin의 建築理論 研究, 申太洋, 大韓建築學會論文集 7卷 3號, 1991. 6, p.30 재인용
- 17) Owen Jones, 'The Grammer of Ornament', Day and Sons, London, 1986, p.2
- 18) 'The Search For a Postmodern aesthetic', peter Fuller, Design After Modernism, John Thackara, p.125
- 19) Ibid, p.125
- 20) 자세한 내용은 G. ゼムベ.의 '被服論'의 形成過程について 19世紀歴史主義的研究, 日本建築學會計劃係論文報告集, 第 379號, 昭和, 1962. 9. p.138 참조
- 21) Anada k. Coomraswamy, 'Figures of Speech or Figures of Thought', Collected Essays on the Traditional or Normal View of Art, London, 1946, p.86

(표 4-1) 裝飾化된 構造論에 대한 主要 理論家들의 裝飾概念

理論家	視覺的 裝飾體系 擁護의 背景	裝飾概念의 觀點
알베르티 (L.B.Alberti)	○形式美와 補助美의 區分	○幾何學的 比例, 用度 ○色彩, 材料, 裝飾
첼머 (W.Chamber)	○建築의 原則的인 構成對象을 두 가지로 區分	○建物の 構築에 도움을 주는 要素 ○建物を 優雅하게 統合시켜주는 要素
젠퍼 (G.Semper)	○物質論的 觀點 ○曆, 幕으로서 裝飾 把握	○裝飾은 形態言語 ○歷史, 存在理由, 本質, 他者와의 關係가 內在
슈마르소 (A.Schmarsow)	○裝飾은 形式衝動 ○形式美의 追求	○時空을 超越한 裝飾體系가 藝術分野의 共通된 特徵
쿨라스 위미 (A.K.Coomraswamy)	○形式美의 手段으로 把握 ○裝飾衝動的 強調	○實存的 次元의 環境構築에 裝飾이 一助
섬머슨 (J.Summerson)	○裝飾은 커뮤니케이션의 文法的 形態	○裝飾은 오브제에 美感을 附與
곰브리치 (E.H.Gombrich)	○象徵體系로서 裝飾을 把握	○過去와의 연결고리로서 把握

(표 4-2) 構造化된 裝飾論에 대한 主要 理論家들의 裝飾概念

理論家	視覺的 裝飾體系 廢止의 背景	裝飾概念의 觀點
듀랑 (J.N.L.Durand)	○實用성과 經濟性 ○機能主義的 思考	○裝飾構成의 原理를 이용한 平面配置
퓨긴 (A.W.N.Pugin)	○道德性和 倫理性 ○倫理性和 實在論	○構造體와 統合 ○裝飾의 2次元性
오웬 존스 (O.Jones)	○構造體와 分離된 意匠排斥 ○道德性	○有機的인 裝飾觀
러스킨 (J.Ruskin)	○無分別한 裝飾使用에 對한 反撥	○裝飾과 美의 效用性
리글 (A.Rieggle)	○內的인 藝術衝動 ○裝飾의 目的 強調	○裝飾을 內的인 衝動과 創造의 結果 ○藝術的 造形運動과 藝術的, 裝飾의 概念支持
함린 (A.D.Hamlin)	○空間을 덮는 方式 ○裝飾生産의 意味와 方式	○裝飾의 構成原則의 構造化 強調
아돌프 로스 (A.Loos)	○社會的 觀點 ○經濟的 觀點	○有機的 統合의 概念 ○裝飾과 文化의 進化에 對한 相關性
펄스너 (N.Pevsner)	○道德性 強調	○裝飾의 正直性 強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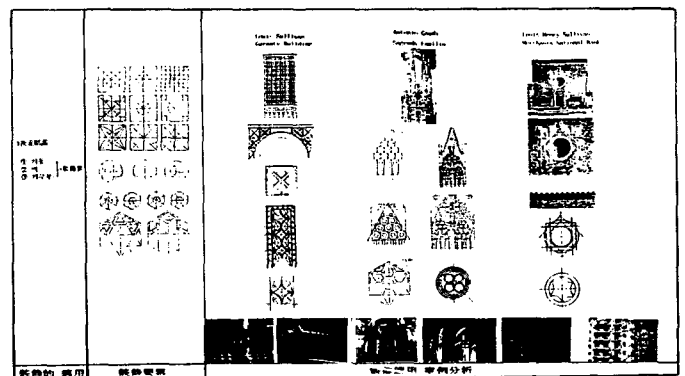
5. 裝飾論의 轉換期的 意味

이와같은 脈絡에서 近代 건축가들은 이전의 건축과는 전혀 다른 구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초월적인 스타일을 전개하는 논리가 수렴되었지만 역사가 주는 교훈의 정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결국 그러한 의구심에 대한 解消가 轉換期的 時點에서 장식의 주된 역할을 표면에서 내부로 구조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기능주의 건물의 형태에서 장식의 표피적이고 시각적인 현상은 사라졌지만 裝飾構成의 方法論이 建築構成의 내면원리로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近代建築에서 裝飾化된 構造體系 역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장식화된 구조론은 아르누보와 세세션(Secession)에 영향을 미쳤다.

아르누보의 장식이 곡선에 대한 조형의지를 바탕으로 식물과 꽃, 흐르는 물과 파도와 같은 모티프를 주로 사용하면서 시각적인 장식체계를 사용하였다. 그러한 장식은 가우디가 사용한 자유롭지 못한 물체를 자유롭게 구성하려고 했던 것이나, 수평과 수직에 의한 장식구성을 하

려한 설리반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등의 장식과 구별된다. 루이스 설리반이 설계하여 1895년에 완공된 버팔로의 개런티 빌딩과 1898년 비인 세세션의 건축가 오토 와그너(Otto Wagner)에 의해 완공된 비엔나의 마줄리카 아파트 등은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그림 5-1 >.



< 그림 5-1 > 裝飾의 構成原理에 依한 가우디와 설리반의 表面裝飾

결국 전환기적 시점에서 이원화된 장식론은 상호 병존했다고 파악할 수 있으며 단지 건축양식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구조화된 장식론의 상대적 우세가 유지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구조화된 장식론은 근대건축의 즉물성과 기능성에 연관되어 시각적인 장식의 우월이 아니라 건물 내면에 동화된 장식체제로 이루어지며 앙리 반 데 벨데(Henry van de Velde), 페터 베렌스(Peter Berhens), 월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모홀리 나기(Lazlo Moholy-Nagy),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 그리고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같은 건축가들의 지도력에 확대되어 나갔다.

이러한 구조화된 장식론과 장식화된 구조론은 전환기의 시점에서 相互依存하여 나타났지만, 전통적 장식이 傾倒된 복고적인 양식이 대중적 위세를 떨치던 세기의 전환기 속에 시각적 장식체계에 확고한 거부 의사를 表明하는 모더니스트의 사고가 본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20세기초 기능주의자들은 장식의 완전한 배척 속에서 미덕을 구하려 하였다(그림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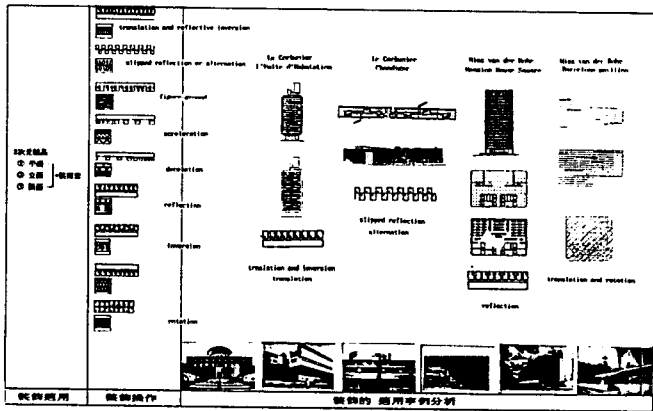


그림 5-2) 裝飾의 構成原理에 의한 르 코르뷔지에와 미스의 立面과 平面構成

결국 전환기적 시점에서 장식론에 대한 쟁점은 근대성에 따른 反裝飾主義의 登場과 機能主義의 觀點에서 有用性이라는 側面이 關鍵이었으며, 그에 걸맞는 구조화된 장식론의 전개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결과는 기계미학, 신즉물주의(Die Neue Sachlichkeit), 機能主義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념이 결집되어 나타난 것은 아르누보의 강한 장식성에 대항하여 형성된 독일공작연맹과 이를 이어 받은 바우하우스였다. 세계 1차대전 후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경제적으로 실패하여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자, 전후 복구를 위해 독일공작연맹은 1916년부터 단순하고 실용적인 商品을 만들기 시작했고, 裝飾이 排除된 單純한 産業디자인과 공예품에 대한 내용을 다룬 《장식없는 형태(Form ohne Ornament)》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로써 디자인계의 革命은 급속히 진행되었다. 1925년부터 1933년까지 나치에 의해 문을 닫기까지 독일공작연맹의 기능주의 미학을 계승한 바우하우스의 교육목표는 응용된 장식의 제거와 산업재료와 근대적 기계 기술의 이용을 통한 실용주의적 디자인의 창조였다.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바우하우스와 다른 유럽의 모더니스트들 사이에 일치된 합의점이 있었다.

6. 結論

建築 歷史를 통해 보면 洋식이 變化하는 轉換期的 性格은 이처럼 裝飾의 問題와 끊임없이 聯關되어왔다. 그러한 側面에서 本 研究에

서는 建築에 있어서 裝飾의 本質을 파헤치려는 의지와 깊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최근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서 모더니즘 시기에 도덕적으로 미학적으로 철저히 배척당했던 장식이 양식 역사상에 재등장하여 건축과 인테리어, 가구디자인, 그리고 심지어 순수 예술에까지 재등장함으로써 장식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양식사적인 측면에서 간과되어오던 19세기의 절충주의는 현대 포스트모던 디자인과의 상호연계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와같은 革新的인 變化가 있었던 近代 디자인의 成立段階에서 裝飾의 役割을 시대적인 상황과 결부시켜 서술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식이란 일반적으로 미화, 즉 피장식물을 미화해서 운화하는 것이다. 협의로는 미화를 위한 장식의 체계 전체를 의미하는 'Decoration'과 구분하여 개개의 미화를 위한 장식모티브를 의미하는 'Ornament'로서 辨別될 수 있다. 논문에서의 미학적 개념의 장식(Ornament)은 협의의 Decoration과 Ornament를 통합한 장식체계를 말하며 독일어로는 Ornamentik(장식술)의 개념이다.

2) 19세기 裝飾概念의 變化에는 産業革命과 함께 展開된 産業社會의 急進의 到來에 의한 디자인分野의 生産시스템의 變化, 그리고 崩潰체제의 몰락에 의한 市民社會의 展開, 예술장르의 分裂 등이 要因으로 作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장식론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때 장식론은 장식화된 구조론과 구조화된 장식론이라는 이원화된 상보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장식의 옹호론과 폐지론의 浮沈속에서도 장식을 구성하는 장식체계가 근간을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4) 이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장식론은 경제적, 도덕적 관점, 장식의 생산방법 등 장식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장식의 시각적 체계를 거부하고 장식 구성 원리가 건축 형태 구성 원리의 내면화로 적용되었으며 장식화된 구조론은 장식의 시각적 체계를 선호하면서 장식의 형태언어와 사회적 언어라는 상징적 의미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5) 전회기적 시점에서 장식론의 쟁점은 근대성에 따른 반장식주의의 등장과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유용성이라는 측면이 관건이었으며 이는 구조화된 장식론의 전개과정으로 집약될 수 있다.

6) 현대에 들어와 이러한 이원화된 장식론은 각각 응용 유형을 갖고 발전되어 나가며 장식화된 구조론은 포스트모던 건축에서 고전적 건축 요소를 인용한 장식된 구조형태로 구조화된 장식론은 해체적 건축에서 3차원적 장식결정으로 이루어진 탈구조화된 장식론으로 전개된다.

참고문헌

J.M.Monlar, 'The Interior Dimension',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992.
 Michael Collins, 'Towards Postmodernism-Decorative Art and Design Since 1851', New York, Rizzoli, 1987.
 John Thackara, 'Design After Modernism-Beyond the Object', Thames and Hudson, 1988.
 Robert Jensen and Patricia Conway, 'Ornamentalism', New York, 1982.
 Peter Collins,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McGill University, 1978.
 Paul Edwards(editor),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2', The Mcmillan Company, New York, 1967.
 Nikolaus Pevsner, 'The source of Modern Architecture and Design', London, Thames and Hudson, 1979.
 Thomas H. Bebb, 'Grammar of Ornament/Ornament as Grammar',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VIP, (日本語 譯, A + U 8705)
 海野洪, '裝飾美術論', 美術出版社, 日本 東京, 1973.
 天上正人, '1830年頃の新しい裝飾觀の生成について-19世紀 歴史主義研究', 日本建築學會 論文集 370號, 1986. 12.
 金洪基, '아르데코 디자인의 樣式的 特性에 관한 研究', 東洋工業專門大學 論文集 第15輯, 1992.
 李美英, '裝飾美術研究', 弘益大學教 碩士學位 論文, 1987.

(접수 : 1993. 9. 15)